이진호 jinho.lee.z@miraeasset.com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nergy Bites

태양광 코멘트: 머스크의 비전, 우주 태양광

국내 태양광 기업들 주가 강세

우주 태양광 기대감에 기인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태양광 언급: 2/4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기록 중이다. 주가 강세의 배경은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태양광 언급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판단한다. 머스크는 태양 에너지의 백만분의 일만 활용하더라도 에너지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지난 다보스 포럼에서는 SpaceX와 Tesla를 통해 각 100GW씩 총 200GW의 미국 태양광 제조 공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내 태양광 JV 가능성 높아

자체 200GW 생산 비현실적

현실적이지 않은 자체 밸류체인 구축: 3년 내에 200GW라는 미국 태양광 제조 공장을 자체적으로 짓기엔 제약이 많다고 판단한다. 1) 기술력의 부재, 2) 낮은 수익성, 3) 미국 태양광 수요 대비 과잉 공급 때문이다. Tesla(SolarCity)가 기존에 생산하던 모듈을 제외하면, 나머지 밸류체인은 외부 소싱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모든 기술력을 확보하긴 힘들다. 더군다나 OBBBA 법안으로 인해 보조금도 제한적이 된 상황에서 수익성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으며, 미국 2029~2030년 수요 예상치인 40GW 대비 제시한 생산능력도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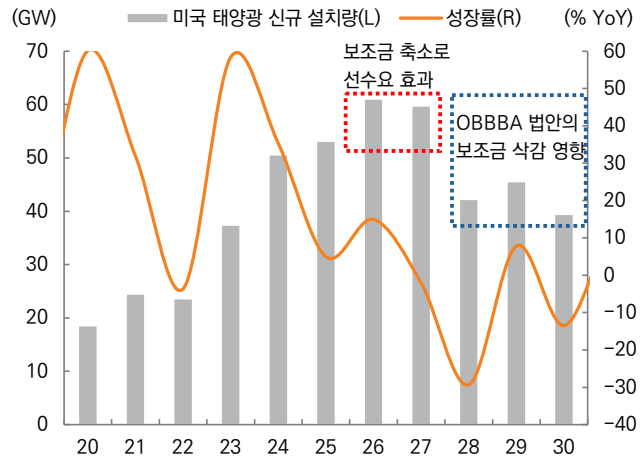
머스크의 생각을 짐작해보자면: 머스크가 제시한 200GW는 자체 소비(우주 태양광 + 미국 데이터센터) 비중이 높을 것이며, 태양광 밸류체인은 합작 투자(JV)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기술력과 수익성을 고려하면, Non-China 태양광 업체들과의 협업이 미국 내 태양광 공장을 건설하기에 최적의 선택이다. 여전히 우주 태양광으로는 GaAs 태양전지가 가장 각광받고 있으나 1) 원재료 비용 부담, 2) 갈륨 생산량 98%가 중국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폴리실리콘/박막형(CdTe)/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애널리스트 코멘트

테슬라 밸류체인에 주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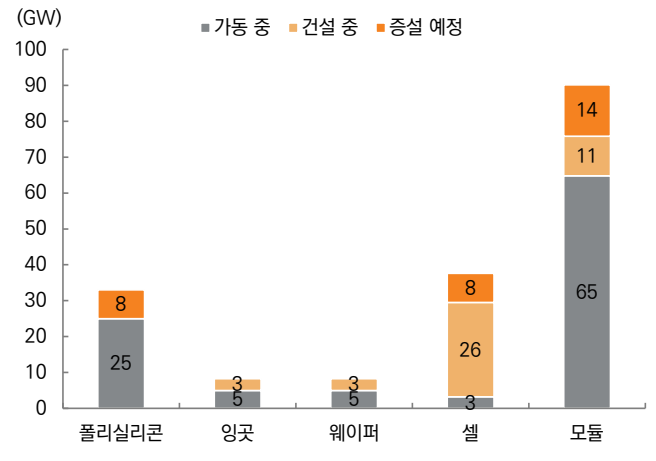
테슬라 태양광 밸류체인에 주목: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실적 개선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테슬라 태양광 밸류체인 포함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미국 태양광 증설 수혜는 규제 중인 중국 기업들보다는 Non-China 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그림 1. 미국 태양광 설치량 전망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생산능력



자료: SEI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